

美 중간선거 일주일 앞으로... 공화 vs 민주 총력전

여론 조사 '공화당 우세'... 민주당 오바마 지원 속 추격세

에블라·IS격퇴 등 변수... 결과따라 오바마 레임덕 율 수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전 반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띠는 '11·4 중간선거'가 27일(현지시간)로 8일을 남겨 놓은 가운데 민주, 공화 양당이 명운을 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공화당은 선거 초반부터 유지해 온 '우 위 구도 굳히기'에, 민주당은 '막판 뒤집기'에 각각 나서면서 양측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가 오는 2016년 대선 기풍을 미리 가능해 볼 수 있는 방향 타라는 점에 걸맞게 여야 참정들이 총출동해 대선 전초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양당, 선거 막판 총력전=민주당에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조 바이든 부통령,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등이 전략적 요충지를 돌며 지원유세를 벌이고 있다. 인기 하락세로 그동안 중간선거와 거리를 뒀던 오바마 대통령도 조기투표를 통해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등 뒤늦게 지원유세에 시동을 걸었다.

공화당에선 최근 돌풍을 일으키며 공화당 예비후보 지지를 1위를 연이어 차지한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과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 등과 더불어 작년 2012년 대선 때 공화당 후보였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오바마 정부와 접명한 대립각을 세우며 표몰이를 하고 있다.

중간선거

미국에서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상·하 양원의원 및 공직자 선거. 재임 중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닌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 하원의원은 2년, 상원의원은 6년이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이뤄지나=현 시점에서 선거 결과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선거 전문가와 주요 언론은 공화당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역대로 중간선거 자체가 여당에 불리한데다 집권 6년 차인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피로감까지 겹쳐 선거판이 공화당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중간선거의 승패 판단 기준인 상원에 대해 공화당의 승리 가능성을 68%로 전망했다. 상

원 의석은 현재 민주당 55석, 공화당 45석으로 공화당이 6석을 보태면 상원을 장악하게 되는데, NYT는 공화당이 7석을 추가해 52대 48로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공화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동시에 장악하면 2006년 조지 부시 공화당 정부 때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한 이래 8년 만에 명실상부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도래하게 된다.

특별행정지역 대표 6명을 제외하고 435명(공화 233석, 민주 199석, 공석 3석) 전원을 새로 뽑는 하원의원 선거는 접전지역이 37개에 불과해 현행 구도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선거 변수=미국 본토를 덮치면서 선거 막판 변수로 떠오른 시아프리카발(塞) 에블라 바이러스와 미국의 최대 외교 현안인 이슬람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

격퇴 작전 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남은 기간 판세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민감한 사안인 총기규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24일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인근 매리살-필척 고교와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에서 총격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기규제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전망=공화당이 승리해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하게 되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면서 차기 대선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민주당이 극적으로 상원 승리에 성공한다면 불안하게나마 지금의 역학관계 균형을 유지하면서 공화당과 차기 대선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민주당 승리 시 국정주도권을 다시 한번 장악하면서 이민 개혁법 등 핵심 어젠다를 밀어붙일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공화당이 승리하면 급격한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집권 후반기 정국의 향배가 180도 바뀌는 셈이다.

◇한국계 후보 유일=이번 선거에서 연방의원에 도전하는 한국계 후보는 33세의 '정치 신예'인 로이 조 변호사가 유일하다. 1살 때 이민 온 조 후보는 뉴저지주 5선거구에서 6선의 공화당 거물인 스킷 가렛 하원의원에 도전장을 냈으나 현지 언론은 가렛 의원의 낙승을 점치는 분위기다. 지한파(상원 7명, 하원 40여명) 의원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승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中 공산당, 법 강화로 테러·부패 근절 의지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서 반테러법 등 '의법치국' 표명

중국 당국이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결정한 '법치 강화'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다음 달 1일까지 제11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반(反)테러법 초안과 반(反)간첩법 초안 등을 심의한다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27일 보도했다.

중국에서 처음 제정되는 반테러법은 중국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중심으로 끊이지 않는 '테러'를 척결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공안 및 정보당국의 테러 정보수집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반테러법과 함께 심의되는 반간첩법 초안 역시 테러 근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법은 1993년 제정된 '국가안전법'을 개정한 것으로, 국가안보기관과 안보·보밀(保密) 행정관리 관련 기관, 군 관련 기관 등이 협력해 안보업무 처리도록 규정하며 안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회의는 4중전회의 '의법치국'(依法治国·법에 의한 국가통치)으로 대표되는 '법치 강화' 조치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지도부는 4중전회 직후 '공보'를 통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법률적 수단으로 수호하겠다"며 국가 안보 강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또 이번 회의에서 전인대 일부 대표들의 대표자적 심사도 진행해 비리를 저지른 대

표들을 퇴출시키고 새롭게 임명하는 인사 조정 조치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중국 공산당의 감찰·사정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4중전회 직후인 25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반부패 개혁에 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왕치산(王岐山) 기율위 서기는 이 자리에서 당 간부들을 향해 "행동을 조심하라"며 강한 경고메시지를 보내면서 당 감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밖에 인터넷 관리기구인 국가인터넷 정보판공실은 전국 인터넷 관리기관 책임자 좌담회를 열어 '의법치국' 방침에 호응해 사이버 공간에서도 법치를 철저히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국에서는 이처럼 당분간 4중전회에서 결정한 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기관별로 구체적인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나라는 뉴질랜드...2위 남아공·3위 독일

뉴질랜드가 외국인들에게 어린이를 키우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뽑혔다.

뉴질랜드 언론은 26일 홍콩상하이은행(HSBC) 그룹이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인 2014년 국외거주자 조사 '외국에서 어린이 키우기' 항목에서 뉴질랜드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항목에서 2위는 남아프리카공화국, 3위는 독일, 4위는 일본이 각각 차지했다. 뉴질랜드는 어린이 건강과 복지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모 10명 중 9명은 뉴질랜드로 옮겨오고 나서 아이들이 더 안전해졌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8명은 건강과 복지가 좋아졌다고 밝혔다.

총 34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외국인들은 뉴질랜드 날씨와 경관, 실생활 체험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 스위스, 싱가포르가 각각 1, 2, 3위를 차지한 경제 항목에서 뉴질랜드는 22위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뉴질랜드에서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조사에서 뉴질랜드의 종합 순위는 스위스, 싱가포르, 중국, 독일, 바레인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HSBC 그룹은 뉴질랜드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나라라고 밝혔다. 뉴질랜드에 대한 조사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209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승리, 재선에 성공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브라질리아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손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답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풍당당'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연임 성공

득표율 51.45%로 승리

26일(현지시간) 시행된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집권 중도좌파 노동자당(PT) 후보인 지우마 호세프(여·66) 대통령이 승리했다. 이날 밤 8시30분께 브라질 연방선거법원의 98% 개표 집계 결과 호세프 대통령의 득표율은 51.45%로 나타났다.

제1 야당인 중도우파 브라질사회민주당(PSDB) 아예시우 네비스(54) 후보는 48.55%였다. 결선투표에서는 단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승리한다.

호세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노동자당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집권 4년 더 연장하게 됐다. 호세프는 브라질 사상 연임에 성공한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브라질에서는 군사독재정권(1964~1985년)이 끝나고 모두 6명의 대통령이 직선제로 선출됐다. 이 중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전 대통령(1995~2002년 집권)과 플라 전 대통령(2003~2010년 집권)이 재선에 성공해 8년씩 정부를 이끌었다.

호세프 대통령은 내년 1월1일 새 정부를 출범시키며 집권 2기를 맞는다. /연합뉴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원적외선티터, 대형제습기
펠릿온풍기, 건조기, 범시온탕소독기

기존 난방비 대비 60% 절감효과

펠릿 온풍기외 2종: 비닐하우스, 식당, 상가, 유치원, 사무실, 전원주택, 펜션 등

건조기의 2종

원적외선 히터외 11종

대형 제습기의 2종

이동식 에어컨의 11종

범시 온탕 소독기의 5종

무등산업 (062) 372-7585 시·군 취급점
010-3601-7701 선착순 모집

성황리 공개중

순천 최초 수직형 미니아파트 리가안

적게 투자하고 크게 누려라!

1억투자시 월160만원 수익

생활편의·교통·문화·교육의 중심에 위치

지상 2층의 하늘정원과 1면 광대기층의 옥상하늘정원

구. 순천민정원관리사무소 1km내에 위치 (순천민정원 조망권)

무인택배시스템

휠트니스센터

1599-1129 [#268 리가안에 주목하라]

시흥 | 영미 | 시흥 | (주)시흥 | 비동 | 시흥 | 대한주택보증

M/H_ 홈플러스 풍곡점 주차장 뒷편